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2018년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새해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복음의 일군들로 사용되시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월 1일 (월) 제 166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신년 칼럼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변한다

장영춘 목사 | 퀸즈장로교회 원로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재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난 1년간 미국은 또 다른 변화를 향해 몸부림치고 있다. 20년전 오바마도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그 변화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였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정계가 변해야 국가가 산다. 마찬가지로 경제계가 살아야 국민생활이 윤택해진다. 세상의 변화를 요청하는 소리는 온 누리에 번지고 있다. 도덕과 윤리도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 동성애라는 인륜도 천륜도 파괴하는 윤리관이 팽배해지고 있다.

미국은 정치계보다 먼저 윤리 도덕이 변해야 한다. 그 변화의 목소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강하게 외쳐지고 있다. 이 사회, 이 세계, 이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방향을 상실한 배가 파도 위에 표류하듯 이 내일을 예측 못할 위험한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끝이 암담한 종말론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해야 하고 나라와 사회와 지역이 변해야 한다. 새로운 변화가 없이는 더 이상 인류의 소망은 없을 것이다.

세상이 변하려면 가장 먼저 교회가 살아야 한다. 교회가 살려면 그 지체인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한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4-16)고 말씀하셨다.

원자탄을 발명한 핵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독일에 있을 때 나치정권이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무자비한 권력투쟁을 하며 세계 평화를 짓밟고 있었다. 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저항하다가 죽어야 했다. 아인슈타인은 젊은 대학생들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법적 만행 앞에 함구하고 있었다. 그는 사회의 양심이라고 자부하는 신문기자들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히틀러의 권력 앞에 붓을 꺾고 말이 없었다. 그 때 니콜라 목사는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치독일과 히틀러의 만행을 규탄하는 설교를 하고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 교회에 참석했던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걸고 나치정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다가 감옥으로 연이어 끌려갔다.

아인슈타인은 이 기독교인들만이 권력과 돈과 정치를 위해 양심도, 윤리도, 진리도 짓밟는 나치정권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고 역사의 소망이 기독교회에 있음을 알고 미국으로 망명하였다고 타임스기자들에게 토로하였다.

오늘도 이 세상은 변해야 한다.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육제도, 경제제도, 문화예술제도도 변해야 한다. 세상이 변하려면 먼저 그 시대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살아야 한다.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그대로 선포되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교인들이 살아야 한다. 교회가 살아 이 세상에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발하는 등대 역할을 하면 자연히 그 지역사회가 변하게 될 것이다.

2018년 새 아침이 밝았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알고 먼저 목회자들이 변하여 교회를 살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 서야 하겠다.

● 2018년 새해 축시

아바의 은총

나 삼진 목사
(오렌지카운티살롱교회, 시인)



어제 저녁 서산을 힘들게 넘던 해가
이른 아침 교회당 창을 두드리면
사람들은 새해를 노래합니다
하늘을 바라는 마음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욕망을 노래하며 다시 땅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매일 열흘의 양식을 위해 맘 흘리지만
하루를 살기 위해
하루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날마다 행복하기 위해
하루 은총이면 만족합니다

이 아침에 출발하는 36.5킬로미터 마라톤
앞만 보고 달릴 일이 아닙니다
아침을 노래하는 새소리 응원 들으며
길가의 이름 없는 들꽃 인사 받으며
이웃과 함께 소풍을 나설 일입니다

많은 것을 구하며 쌓기보다
하늘이여, 이 한 해 동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작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소서
우리는 많이 갖지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지 못해 행복하지 못합니다

온 누리에서 가장 부요한 땅
아메리카에 사는 나를 위해
해는 궁창穹蒼에 매달려 힘이 들고
언제나 땅에만 머무는 우리의 기도에도
아바Abba의 은총은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나삼진 시인/ 월간《창조문예》신인작품상 등단, 시집《생각의 그물》(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우수도서), 《오늘 밤 울음도 강이 될 수 있었다》(공동시집, 2015), 《배와 강물》(2017), 창작곡 음반《즐거운 노래》(2014) 등이 있음. 현재 오렌지카운티살롱교회 목사.
이메일: samjinna@msn.com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김봉운 목사



신년설교
유재일 목사



신년메시지



신년논단

조진모 목사, 이윤석 목사,
김만형 목사, 이병구 선교사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및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 과정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학위과정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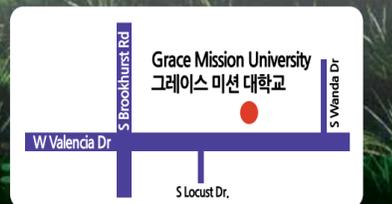
LA 지역 무료 공개 강좌 및 입학설명회	
수요 오후 5시 30분	1차: 1월 17일 위기가정상담과 치유(김영철 교수) 현대문화와 리더십개발(황의성 교수)
	2차: 1월 24일 예배 인도를 위한 기타 교실(조석희 목사) LA 확장 클래스 (문의: 213-422-9966, la@gm.edu) 설명회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면제

플러튼 본교 오픈 특강	
미디어 사역을 위한 자막(CG) 및 영상광고 제작 실무 과정 (3학점) 1월 15-18(월-목), 22-24(월-수) 30(화) 8일간 저녁 5:30-11:00pm	강사: 제임스구 교수 및 실무전문가 청강: 150불, 교재및간식50불
해택: 실무 자막 프로그램 실습, 한글 및 영어 성경 자동 자막 및 복음송 및 찬송가 5000여 곡 자막 소스 제공	

ABHE 정회원
tracs TRACS 정회원
ats ATS 정회원

2018년도 봄학기 등록 시작: 2018년 1월 8일 봄학기 수업시작: 2018년 2월 5일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카카오톡: gmu3000





시론

성장하는 한해가 되게 하소서!



김종운 목사 (백스카운터장로교회 담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밝아온 2018년 새해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통하여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새해에 우리 주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과 긍휼하심이 여러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첫 글을 통하여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바가 우리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므로 새해엔 육신의 나이가 더해짐과 비례하여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영적 출생과 아울러 영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영적 출생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한다면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21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씀하심으로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자세로 잘 받아들여야만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37년간 교회를 섬겨오면서 필자 자신과 교우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새해엔 필자가 먼저 말씀을 더 잘 받아들임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서 독자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자세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받아들이는 마음(receptive heart)이고 다른 하나는 거부하는 마음(rejective heart)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설교자나 회중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야고보 사도는 1장 19절에서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라고 교훈하십니다. "듣기를 속히 함은(quick to hear)"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함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는 마음자세를 가르치기 위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귀담아 들어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타주에 있는 애인에게서 온 편지를 듣는 마음, 어려운 대학 시험에 합격한 통지 내용을 듣는 마음, 누군가 읽어주는 일전에 나간 아들에게서 온 편지내용을 듣는 노모의 마음과 같이 설교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늘의 메시지,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말하기는 더디함은(slow to speak)"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대답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수군거리고 중얼거리는 태도를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그럴듯하게 형식을 갖춘 종교인일지 모르나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점점 고칠 수 없는 영적 장애인들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그들의 마음자세를 보시고 순종하려고 들지 않고 시험하려고 들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잘 받고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는 분량이 많으면 가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는 소리가 많은가 살펴야 합니다.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래리 킹은 "I have never learned anything while I was talking"(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내기를 더디함은(slow to anger)" 화개하는 마음자세를 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지적당할 때 마땅히 화개하는 마음으로 받아야함에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외식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분노한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라는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나서 이를 갈고 마침내 돌을 던져 죽인 유대인들처럼 설교를 들으며 어떤 모양으로나 화가 생긴다면 영적 성장은커녕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범한 인류 최초의 살인은 분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생활은 영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간혹 화가 날 때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why are you angry?)는 음성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영적 성장뿐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성장을 위해서도 받아들이는 마음(receptive heart)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분들의 말을 기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longing for), 그 말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to obey), 그 말이 옳다면 화개하는 마음으로(repenting) 받아서 각 교회마다 가정마다 새해엔 영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이루어진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pwkim529@gmail.com

열린 세계 vs. 닫힌 세계...갈림길에 선 지구촌

이코노미스트, 2018년 지구촌에서 전개될 주요 쟁점들 전망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중간평가' 무대에도 일컬어진 앨라배마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예상을 깨고 승리했다.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는 12일 치러진 선거에서 개표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개표가 99% 완료된 상황에서 49.9%의 득표로, 48.4%를 얻은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존스의 당선으로 민주당은 상원에서 1석을 늘려, 49석으로 51석의 공화당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번 선거는 극우 성향인 데다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진 로이 무어 후보를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사퇴시키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시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상원 보궐 선거가 '극적인 이변'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집중 보도한다(Once a Long Shot, Democrat Doug Jones Wins Alabama Senate Race).

2018년은 한마디로 정치적 긴장과 함께 첨단 테크놀로지의 엄청난 발전으로 지구촌 사람들이 바쁘게 지낼 전망이다.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히 갈수록 심화되고, 유럽에선 브렉시트 진전에 대한 협상들, 중국의 경제적 개혁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와 브라질, 멕시코에서의 대통령 선거 등으로 지켜질 수 있는 평화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기에 한국 평창 동계 올림픽, 러시아에서의 월드컵으로 스포츠 열기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코노미스트는 따라서 2018년에 전개될 주요 쟁점들을 미리 전망해준다(The World in 2018 from The Economist highlights key global themes to watch for next year).



3. 정치와 경제로 빛어내는 스포츠 축제, 한국 동계올림픽, 러시아 월드컵

할 것이다

5. 지구촌 경제 마침내 회복기로 입성

지구촌 사람들은 한국과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열기에 주목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여전히 핵위협과 도발 앞에서 동계 올림픽 성공을 위한 지구촌 흥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의 연정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단일 경기로서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을 개최한다. 따라서 동계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본의 아니게 정치와 경제를 벌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시작될 것이다.

4. 장기 집권한 리더들의 퇴진(Long good-byes from leaders in Japan, Cuba and Saudi Arabia)

군국주의 잔재의 정점에 있는 일본 천황 아키히토가 물러날 것이고, 쿠바의 독재자 카스트로 역시 정치 일선에서 은퇴할 것이고, 사우디의 살만 왕도 퇴위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은 가령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와 같은 지도자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매진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경제적 이혼인 '브렉시트'가 발효되는 시점이 2019년 3월로 결정될 지 의회 인준이 요구되며, 아니면 무산될지 향후 정국이 주목된다.

(15면으로 계속)

[알림] 정기휴간에 따라 1월 6일 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gmail.com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발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8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학			
부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학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8년 1월 19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8년 1월 20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8년 1월 22일(월)-1월 24일(수) 저녁 7시45분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신년설교

노벨 수상자,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호겔 교수는 제 4의 영적 각성이라는 저술서에서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경제도 함께 하락하고, 영적으로 부흥할 때, 경제도 함께 호황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미국이 예수님 명하신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미국은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위대한 지도력을 행사하며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역행하는 길을 걸을 때,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지도력도 상실하고 경제도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돌아보며 2018년은 세계 선교의 깃발을 드는 해로 삼을 수

1. 모든 민족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간 지상에 계시면서, 첫째, 부활을 친히 증거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계선교를 반복하여 강조하신 것으로 보아 세계선교를 명령하시기 위해서 지상에 더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세계선교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 삼는 사역이 강조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46) 그리고 세계선교입니다(47). 이어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48), 성령을 부여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49).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요20:21).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내는 자(the Sender)의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가는 자(the Sent)의 분이

탁하신 선교의 명령에 어떤 방법으로든 순종하여야 합니다.

2.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성경의 중심 주제가 세계선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48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애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구약의 내용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분류하시며 다시 설명해 주시고(44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45절), 이어서 구약성경의 중심 내용을 두 주제

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가말리엘 문하에서 구약을 배워서 신약의 구약적 배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이었으며, 회심 후에는 실제로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와 마케도나, 아가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헌신과 가르침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팀에 의하여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행15:25-26).

그가 1-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에 이송되

세계복음화에 함께 열심을 내야하는 이유

마태복음 28:18-20



유재일 목사 (KAPC 총회장, 앵커리지 열린문장로교회)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수반되는 축복을 체험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시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알고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여지셔서 찬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침들을 관찰하면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음화 하여,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서, 왕이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되어있습니다(마28:18-20). 명령자의 권위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따르는 약속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복음전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막16:15-20). 너희는 온 천하(범위)에 다니며, 만민(대상)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도의 결과로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거나 정죄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전도사역에 따르는 표적들을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구약의 중심 주제를 가르치시고,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눅24:44-49).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후, 구약 성경 전체를 두개의 중심 주제로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그 첫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46절), 두 번째 주제가 '세계선교'입니다(47절).

제자들은 이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들이기에 증거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이었습니다(48절). 구약성경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중심 주제로 이 두 주제를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두 주제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하여 전한 인물들은 바울과 그의 선교팀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중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개 서신서를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그의 팀의 한 사람이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그와 함께 사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와 마가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의하면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로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메시지는 바

어 2년을 벨릭스 총독의 권한 아래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부임하고 아그립바 왕이 방문하여 왔을 때, 아그립바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자 하여 불러서 바울이 하였던 일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름을 받을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며(행 26:17),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했다고 말하고, 자신이 전한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증거한 내용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다(행26:22)고 함으로 구약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기를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세계선교) 함이니이다"(행26:23)라 하였습니다.

(10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featuring vinyl and mesh banners, and church display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신년메시지

‘생애, 최고의 성실로 꽃피우는 새해’

뉴저지교협회장 **윤명호 목사**(뉴저지동산교회)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구상시인의 ‘새해’라는 시의 일부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언제나 변함없지만,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까만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은 까맣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은 노랗게 보일 것입니다. 사실, 지난해와 새해는 달력에서만 차이 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보내고, 오늘과 비슷한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지난해와 다른 새해를 경험하려면 이 세상 환경이나 이웃이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꾸면 됩니다. 새해를 지난해와는 다르게 맞이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새로워지면, 내가 맞이하는 모든 시간이 새로워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새롭게 느껴지고, 내가 사는 환경도 새롭게 변화됩니다. 언제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늘 주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각자의 ‘생애, 최고의 성실로 꽃피우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나누소서.’

davidmyoon@hotmail.com

“더 있다” 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해로

C&M 한인총회장 **백한영 감독**



미주크리스천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헤라클레스가 지브롤터 해협 언덕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당시 알려진 세계의 끝을 표시합니다. 두 기둥에 라틴어로 “Ne Plus Ultra”라고 적었습니다. “저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기둥은 선원과 항해자들에게 더는 갈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였고, 가능성의 문을 걸어 잠그는 역할을 했습니다. 15세기에는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해서 이 “Ne Plus Ultra”가 지도 끝에 써지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해양 제국 스페인의 좌우명으로서 스페인 선단이 항해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너머에 더 있다’는 신념에 찌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새 땅과 새 기회를 발견하자 스페인 제국은 좌우명과 동전에서 “Ne”를 지웠습니다. 스페인의 좌우명은 “Plus Ultra”로 바뀌었습니다. 스페인의 Valladolid에 콜럼버스 기념비가 있는데 발로 “Ne Plus Ultra”에서 “Ne”를 지우는 사자의 상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더는 없다”를 “더 있다”로 바꾸시는 유다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목상할 때 사도 바울의 선언이 들려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기 못할 것이니라”(롬11:33).

“더는 없다”며 주저앉고 싶은 시대입니다만, “더 있다”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새 세상을 발견케 하시며, 뿐만 아니라 새로워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 있다”로 바꾸시는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통해서 더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koreanca@gmail.com

“불변의 진리(眞理)와 변화의 상황(狀況)사이에서!”

뉴욕목사회 회장 **문석호 목사**(뉴욕호신장로교회)



“주님의 은총이 새로운 한 해에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의 말이 새해의 인사로 표현되기에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새로운 한 해’라는 말이 그리 단순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가는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이 세상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멀리 하려는가?’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마땅히 따라야 할 ‘하늘의 진리(眞理)와는 무관한 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배우는 학교의 교실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까지 이미 파고 들어온 ‘삶의 상황(狀況)들은 신자들 로 하여금 ‘참 신앙의 길이란 이토록 험겨운 것이로구나!’라는 탄식을 저절로 불러일으키는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야 별들이 반짝이듯이, 이러한 혼란의 때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늘의 진리가 더욱 빛나야 할 바로 그 때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입증된 진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바른 말씀 앞에서 믿음의 용기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사랑과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 한 해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기이하고도 무섭게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이라 해도, ‘오직 주님의 은총’이아말로 인류의 희망이 됩니다. 그 희망이 새로운 한 해에 비추이도록 성도는 그 고요한 맛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oonlight8937@hanmail.net

믿음의 선수로 짜릿한 승리 맛보는 한 해 되길

필라교협회장 **박도성 사관**(구세군필라한인교회)



할렐루야! 먼저 지난 한 해 동안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다짐과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짐과 결심만으로는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압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어떠한 경주도 연습 없이 가능한 경주는 없지요. 연습 없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창동계 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하는 모든 선수들은 날마다 피나는 연습으로 금메달을 위해 매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 믿음의 연습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습을 제대로 해낸 선수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이제 막 시작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수들로 준비되어지는 소중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믿음의 경주에서 짜릿한 승리를 맛보며, 그 승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더불어 평창동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승리와, 여러모든 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dsp5053@gmail.com

“새해, 새희망, 새축복”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2017년의 다사다난했던 해가 저물어가고 2018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협회의 제 44회기는 “예수사랑 실천하는 교협”으로 표어를 정하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뉴욕교계와 한인동포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계경제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중국의 경제압박, 미국의 금리인상, 북한의 핵탄도 위협 등으로 세계경제는 어려운 영향을 받고 한국경제 또한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예수사랑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 한다는 발표가 말미암아 동유럽은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한 획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텍사스 주의 시골 침례교회에서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주일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중무장을 하고 들어와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순식간에 2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총상을 입는 참혹한 일이 발생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래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저녁에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총을 든 무법자로 인하여 목사 4명과 5명의 성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다른 곳이란 세계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의 때에 우리 인간은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슬픔과 충격으로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자의 회복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 렘29:11-13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생각은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적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34:12-13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앞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껴서한 말에서 금할지어다”고 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마음속에 꿈이 있어서 그 꿈이 올바른 꿈으로 프로 그래밍하면 죽음은 생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흑암은 광명으로, 가난은 부유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10:38-39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몰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부여해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거듭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았고 거룩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복 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면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넷째, 성공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예수사랑 실천하는 회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열된 곳에 화해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는 한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또한 새해엔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뉴욕교계와 동포사회에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게 되는 가장 복된 삶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usfgc@hotmail.com

<원고도착순>

휴스턴새누리침례교회 담임목사청빙

Texas 주 Houston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새누리침례교회는 1.5세대 복음의 비전을 품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어 갈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1.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보수신앙을 가지신 분.
2. 남침례교단 소속.
3. 정규 침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분. (M.Div 학위이상)
4. 목회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5. 이중 언어 구사에 불편함이 없는 분.
6.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초등학교 부터)
2.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목회동기, 가족관계, 신앙관 등)
3. 학위증명서 (학부 및 대학원)
4. 목사안수 증명서
5. 최근 설교 CD 혹은 DVD 2회분.
6. 최근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각 1매.
7. 본교회 목회 계획 및 비전에 대한 소견서.
8. 추천인. (2인)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분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제출기한

2018년 1월 31일. (당일 도착분에 한 함)



새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Tel. 713-722-0773 Fax. 713-722-8929
E-mail: hnchcoffice@gmail.com Http://saenurichurch.org
9560 Long Poing Rd., Houston, TX 77055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신년메시지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KAPC 총회장 유재일 목사(앵커리지 열린문장교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남들에게 전하는 전달자들입니다. 가정과 학교 또는 직장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에서 성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는 빛과 소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편지입니다. 따라서 성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며,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남에게 용기를 주며,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인되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손해도 볼 줄 아는 심자가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되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품에 나타나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행동하시기를

세계한인기독교연맹회 회장 임승래 장로(북가주크리스찬타임스 발행인)



해마다 한해가 바뀔 때마다 하는 말 같지만 2017년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미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ICBM의 미 본토 공격을 막을 시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선제공격 등에 관한 말들이 2017년 연말에 이른 오늘에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위협지역이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차체에 미국과 북한간의 대립 속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난감해 하고 있으며 미주 동포사회에도 이 얘기가 가장 큰 화제거리입니다. 이런 와중에 2018년을 향한 시계는 한결을 한결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시각에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송구영신예배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1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고/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동하게 하시네" 찬송가 가사 말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사행통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사행통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있는 사람은 오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행통하리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독자 여러분! 부족한 제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어진 세계한인기독교연맹회는 우리 한인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또 한편으로 동성애나 이단대책 등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에 대해 우리 한인기독교연맹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응집해 보는 노력도 기울일 것입니다.

회원사들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실무를 맡은 집행부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듣고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 잘 대변해 주리라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은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안에서 행동하시어서 내년 송구영신 예배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동하게 하시네"를 더욱 크고 힘차게 부르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한 해 되기를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2018년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에 강물같이 흐르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 30만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한명의 의인을 인하여 나머지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라 하더라도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한 명의 의인이 바로 그 땅의 생명을 맡은 자입니다.

버스 안에 모두가 술에 만취해 있어도 운전대를 잡은 운전사가 깨어있으면 버스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의 운전대를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어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명입니다.

지금 이 땅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공의와 진리를 구하며 실천하는 의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분명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2018년 한해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여 기도하고 연합해서 세상에 나아가길

오렌지카운티교협회장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



새해가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은 주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대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인생이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중심으로 찾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교인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서로 모여 기도하고 연합해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가올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협회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놀라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오는 시대를 잘 준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는 2018년!

뉴저지목사회 회장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대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고별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지난 역사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650여 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온 백성에게 묻습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강 건너 저편에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말합니다.

2018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간, 3500년 전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가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위상들이 난무하는 세상과 흥해 같은 어려움의 파도 속에서 시시때때로 괴할 곳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사탄과 벌이는 영적 싸움 속에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고 재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나? 아니면 다른 신이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2018년 새해에도 예상치 못했던 갈림길이 나타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영육 간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24:14-15)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와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mission4jsc@gmail.com

<원고도착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신년특집

2000년의 역사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계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원전(BC)과 기원후(AD)로 크게 구분된다. 매년 성탄절에 우리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품으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특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성육신을 이해하는 성도들의 가슴은 남다르다. 그를 환영하며 영광한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다. 그 후 오순절에 성령강림과 함께 지상교회가 탄생되었다. 초대교회는 사회적인 힘을 가지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던 소수로 시작되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작게 시작되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금방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은 매우 연약한 모습이었다.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제국의 황제들의 조직적인 박해를 출발점으로, 온갖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금방이라도 자취조차 없어질 것 같은 모진 억압과 박해 속에서, 정금보다 더 귀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지닌 능력이다.

2000년 동안 교회가 확장되었다. 그 비밀은 피의 복음 자체가 지닌 능력, 죄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과 의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있다.

20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각 시대마다 해석처럼 나타났다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 역사의 중간에 나타난 뒤, 비틀거리면서도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흠치려는 종교들도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의 출현과 도태, 그리고 횡포를 목격하였다. 기독교의 진리를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과 자리를 지켜왔다. 기독교는 인간을 위해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 인간이 중심에 있는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회의 역사의 독특성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걸어오며 남긴 모든 발자국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동행하셨기 때문이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무리 그 규모가 대단하고 조직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지 않았다면, 그 단체는 사람의 모임일 뿐이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선불리 상대를 평가할 수 없다.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절대적 진리로 함께 공유해야 한다.

타산지석과 반면교사

지난 2000년의 교회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벌어진 수많은 사건과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한 시대의 크고 작은 사건이 다음 시대에 끼친 영향을 심도 있게 관찰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곁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요, 한 시대의 일로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역사는 에덴동산에서의 범죄 이후로, 역사의 범주 안에서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이루어졌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해 선택하신 도구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항상 붙잡고 계셨으며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교회 역사를 돌

속에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인간의 역사이기도 한다.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은 죄로 얼룩진 사건들이 그대로 우리 앞에 드러난다. 아무리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 왜곡시키고 미화시켜도 역사의 증거를 거부하고 막을 길이 없다. 하지만, 기나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도 섭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교리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자이시다. 세상의 모든 일 역시 그의 계획안에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역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과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된다. 부패한 인간의 자유 의지로 인하여 생겨난 불경건과 불신앙의 열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화려한 부분 모두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신다.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중대한 유익이다.

중세교회 1000년

없는 무력감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쉼이 없이 지속되었건만, 인간적인 역사관을 벗을 때 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실망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흐르는 배경을 먼저 이해하여야 하기에, 그 기간을 마치 두부 도막을 내듯 자를 수 없다. 학자들마다 중세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초의 수도사 출신 교황인 그레고리 1세(Gregory the Great I, 540-604)가 즉위한 590년부터,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교회의 개혁을 공론화 할 때까지를 가리킨다. 중세교회가 무려 1000년이란 긴 세월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중세교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곧 이어서 종교개혁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구교와 신교를 갈라놓는 역사적인 일이었다. 신교의 초석을 놓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관점과 강조점이 달랐지만, 한 가지 분명하였던 것은 그들 모두 구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개혁을 요구하였다.

지난해 2017년,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마르틴 루터의 업적을 되새겼다. 개신교 성도들은 1년 내내 이와 관련된 글과 설교, 그리고 세미나 등을 통해서 중세 가톨릭교회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중세교회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라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의 말이다. 그는 고부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 이전의 고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세교회를 향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신앙의 이름으로 인간의 창조성을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앞에 설명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세교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적인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세교회의 1000년의 역사를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어느 시대나 흑암의 항상 공존하였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역사라는 관점으로 중세교회의 흔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야 한다.

독자들을 1000년이란 세월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중세교회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한다. 더러운 인간의 뱀새가 코를 찌를 것이다. 이것이 교회라고 반문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걸쳐서 오늘의 교회가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끌어가고 있다. 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는 경계심인 것을 잊지 말자.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역사의 완성위해 선택하신 도구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참 모습 절대적 진리로 공유해야

아보면, 인간의 연약과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운 발자취를 남겼음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떠하였는지 자명하게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이 득실거리는 애굽에서 구출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을

서 진행했다. 하나님 밖에서 이뤄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당장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모두를 이끌고 가시지만, 피조물의 한계를 지닌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즉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를 공부하면 자신도 모르게 편견을 갖게 된다. 특히 중세교회사에 대한 치우친 생각을 지우는 것이 쉽지 않다. 필자도 예외가 아니다. 신학교 시절 중세 교회사 공부를 마친 후 매우 유치한 생각을 가졌다. "왜 이런 것을 공부하지?"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1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벌어졌던 사건과 그 중심에

역사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역사 관점으로 중세교회 평가

그들의 삶에 모시고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강력한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 생활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비유하였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을 광야 생활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던 광야 생활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지나간 일들 사건들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적인 기준의 잣대를 무효화 시킨다. 모든 인간은 성공과 실패, 거짓과 진실, 흥함과 쇠함, 확장과 축소, 그리고 승리와 패배 등은 판단하는 잣대를 소유하고 있다. 그 중에는 어느 정도 객관화된 것들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판단과 결론을 뛰어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즉 흥망성쇠라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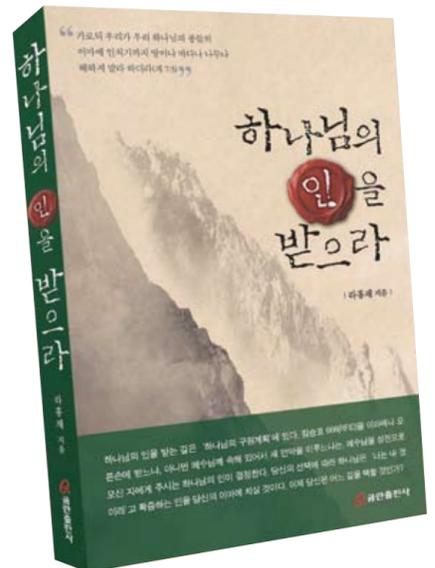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일종의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독자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자면, 처음 중세교회사 공부로부터 받았던 부정적인 첫인상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공부가 무엇이며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지를 깨달으면서 서서히 생각이 바뀌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기준으로 중세교회사를 바라보니, 1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줄지어 일어났으며, 지난 역사 자체를 바꿀 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 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 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신년특집

들어가는 말

우리 모두는 교회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 신앙생활의 광범위한 측면은 항상 개혁주의 신앙의 요점과 상호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 신앙을 지극히 단순화하자면 첫째로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둘째 하나님을 중심하며, 셋째는 오직 믿음으로의 원리를 가지며, 신자의 삶을 강조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측면들 중에 필자는 개혁주의적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간단하게 논술하고자 한다. 개혁주의의 넓은 범위 안에서 종교교신양도 개혁주의의 중심 되는 지류를 따르고 있다. 이런 범위 내에서 말하고자 할 때, 현대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예배 중심보다는 교회성장중심의 방식을 추구하는 교회로 바뀌어지면서 예배의 틀도 변화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교회연합이라는 명분하에 예배 형식과 삶에 있어서 개혁주의적인 아름다운 색채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교회의 예배가 무엇보다 중추의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가는 예배로만 바뀌어 가는 것은 현실과 문화의 적응이란 차원을 떠나서, 예배의 모습이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교회의 예배에서도 개혁교회의 변개할 수 없는 신학적인 원리이며 실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 이론적으로는 오직 성경이지만, 실천적으로는 '오직 성장, 오직 성공'으로 바뀌어져가고 있다. 성장지상주의가 교회가 추구하는 과제가 될 때 그것은 마치 교회개혁 500년 이전의 교회로 복귀하는 탈선이 될 밖에 없을 것이다. 교단의 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로서 존재하는 개혁주의가 될 수도 있다면 그것이 과거 교회개혁을 하기 전의 교회 체제(Roman Catholic)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실 20세기 중반 이후로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를 논한다는 것은 그것이 개혁교회의 틀 안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신론, 인간론, 구원론, 이신론의 등과 같은 다른 신학의 주제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교회개혁이후 개혁신학 안에서 그동안 비교적 통일성이 있었지만, 21세기에는 전통적인 예배를 견지하거나 현대적인 예배를 수용하는 것으로 대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개혁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장로교회 교단들마저 예배의 일치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관련된 차이보다 예배가 어떻게 드러져야 마땅한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예배의 중심적인 규정 원리로 전통적으로 인정해온 '예배의 규정원리(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1. 교회개혁시대의 예배
1) 예배 중의 성찬에 대한 견해

먼저 로마캐톨릭의 예배에 반대하여 예배를 개혁했던 개혁자들의 노력의 중심에는 성찬론의 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16세기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예배에 대한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었다. 루터와 츠빙글리는 예배에 대하여 서로가 예배의 통일된 신학적 견해를 가질 수 없었다.

성찬론의 논쟁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교회론적 분리를 겪는 하나의 이유를 뿐만 아니라, 개혁자들 상호간에도 일치를 볼 수 없으므로 교회의 구조와 예배의 이해를 서로 달리하는 분열의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의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찬론의 논쟁은 사소한 다름으로 여겨질 수 있다.

나의 개혁과 예배 전통을 세워 가게 되었고, 개혁과 안에서 성찬론은 예배론과 관련한 논쟁의 이유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볼링거가 쓴 제2 스위스신앙고백서(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2, 개정 1564)가 스위스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헝가리, 프랑스, 폴란드 등에서 점차 받아들여짐으로 개혁파는 15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전제적으로 일치된 견고한 신앙고백 및 예배 전통을 확립하였다.

2. 예배 규정의 원리

1) 개혁주의의 예배 원리의 근거
장로교 개혁파의 예배와 관련해 스코틀

대표하는 것으로서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배 규정원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규정하셨는가에 대한 개혁주의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주의는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고 과정 짓고 열매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예배와 관련하여 성경에 명령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구되며 명령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 그 원리이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예배에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루터파 또는 영국 성공회파와는 구별이 되는 원리이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더하거나 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며,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덧붙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이사가 29장 13절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명령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규칙으로 삼는 것은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구절들을 근거로 청교도적인 전통 이해를 주장하는 자들이 밝히기를 원하는 원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외의 다른 방식, 곧 사람이 임의로 고안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결국 하나님이 명령한 방식이외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예배규정에 대한 새 해석

이러한 이해에 대해 현대의 새로운 관점의 견해들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존 프레임(John M. Frame)은 위의 성경본문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예배해야함을 교훈하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확인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부여하며 임의로 구성된 예배에 대하여 분명히 정죄를 하면서, 동시에 그는 '예배규정원리'의 현대적 새 관점해석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전통적 견해는 성경이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예배규정을 명령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반면에, 현대적 새 관점의 견해는 성경은 단지 일반적으로만 예배규정을 밝히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고 해석한다.

개혁교회 내에서 '예배규정원리'와 관련된 해석의 논란은 청교도적인 전통적 견해가 뿌리를 두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공예배 지침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전통적 견해와는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현대적 새 관점 지지자들의 이의 제기에 있다. 즉 전통적 견해는 이것들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현대적 새 관점 견해를 지지하는 존 프레임, 프랭크(Richard L. Pratt), 고어(R. J.K. Gore, Jr.) 등의 주장이다.

프레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서 보듯이 '필연적인 좋은 추론'에 의하여 결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프레임은 '그렇다면 필연적인 좋은 추론을 통하여 예배의 규정 요소가 구별이 된다면 그 요소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예배의 규정요소들과 정황들의 구별을 절대적으로 행할 권위자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점을 말한다. '예배규정원리'의 전통적인 해석자들은 예배의 규정요소들을 성경에 근거하여 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성경구절들은 모두가 회당, 또는 성전, 그리고 신학교회라는 각각 구체적이며 특정한 예배 중에 주어진 것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프레임은 지적한다.

(계속)

교회개혁 500주년을 지나며 - 예배의 과제 (상)

이윤석 목사 (뉴욕 부르크린제일교회)



개혁주의 신앙원리: ①성경이 최고 권위 ②하나님 중심 ③오직 믿음 ④신자의 삶 강조

그러나 성찬론의 이해의 차이는 단지 하나의 교리의 차이로만 이해되지 않고 심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논의와도 관계를 가지면서 더욱더 예배의 의식과 관련된 논쟁하게 되었고 이것은 교회의 예배와 신

랜드 장로교회의 예배 표준서였던 존 나스의 공동전례서(the Book of Common Order, 1562, 개정 1564)를 시작으로,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문서를 작성했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작성한 공적예배지침서(A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

이 예배의 규정원리를 성경적인 예배의 표준원리로 받아들여 '오직 성경'을 신학의 기준으로 삼는 교회 개혁의 정신이며 또한 개혁신학의 신학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도 개혁교회는 청교도들의 '예배규정원리'가 개혁신학의

현대교회는 이론적으로 '오직 성경', 실천적으로 '오직 성장, 오직 성공'

예배는 사람이 고안한 방식 아닌 하나님이 명령한 방식으로만 드러야

양의 실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2) 교회개혁시대의 예배의 일치

다행히 루터파와 연합이 실패한 후, 츠빙글리를 계승한 취리히의 하인리히 불링거와 제네바의 존 칼빈은 취리히 협약(1549년)을 통해 성찬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좁혀 일치된 이해를 이끌어내었다. 상징질로 불리는 츠빙글리의 견해와 영적 임재설로 불리는 칼빈의 견해는 이후로 하

Throughout the Three Kingdoms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가 1645년에 출판되어 후에 장로교회의 예배의 규범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 장로교단들은 변화하는 교회적 상황을 반영하도록 적절히 변형시킨,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은 예배 지침서를 출판해왔다.

이런 것을 대표로 요약하는 '예배 규정의 원리'를 다시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를

원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인정했다.

2) 예배규정의 원리에 대한 성경구절
예배규정원리에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의 근거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레위기 10장 1-3절이다. '예배규정원리'의 청교도적인 전통이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것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ing: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세미나교회, 뉴욕목양장교회, 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사백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빛과소금교회, 주미전교회, 퀸즈장로교회, 퀸즈한인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하와이 행복한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신년특집

잘 가르치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 모두에게 있는 아름다운 욕심이다.

“목사로서 얼마나 많이 설교 했는가, 얼마나 자주 가르쳤는가, 좋은 내용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또 잘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며 얼마나 열심히 준비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서는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본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역자 된 자신을 보며 좌절하고 낙담하며 지도자로서 힘을 잃고 한숨을 쉬는 분들을 본다.

성령의 도우심

사역자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탁하며 그와 함께 동역하도록 해야 한다.

사역자는 기독교 교육자로서 잘 가르치기 위해 우선 먼저 어느 교육 환경에 있는지 늘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며 아울러 그를 의탁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효과적 교육방법 모색에 대한 적극적 자세

또한 동시에 잘 가르치기 위해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다른 교육 방법과 일반 자연 계시 속에서 발견된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역자들은 대개 모든 교육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의탁하는 데 있어서는 신실하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조명을 따라 배우는 학습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배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이 없다.

그러면서도,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해 있는 교육적 접근-가르치는 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것, 교사는 늘 정보를 전달해주는 자이고 학생은 늘 듣고 정보를 받는 자로 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꼭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령의 사역과 우리의 노력의 균형

가르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에게 있어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잘 가르치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지도자의 자질을 언급할 때 늘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육적 접근방법들과 최근에 집중 연구되는 학습 이론 영역에서 발견한 것들을 통합해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라 마6:34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

난 후에 배운 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많은 열매들에 대한 기대 등은 그 가르치는 자의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가르치는 리더는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훈련생들은 리더의 열정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리더는 계속해서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아울러 영혼을 향한 열정이 솟도록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인 나머지 독재형으로 치달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열정을

않고 음식을 먹는 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자 예수님은 즉시 공격을 막아주셨다. 그러나 훈련 후반부쯤에서는 제자들을 독립적으로 내어 보내시면서 따라가지도 않고 각각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훈련하셨다.

사람들은 여러 영역에서 발달 단계를 갖고 있다. 잔피어제는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콜빅은 도덕 발달 단계를, 에릭 에릭슨은 인성 발달 단계, 파울러는 신앙 발달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때 이들의 강조하는 바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적 도덕적 인격적 또는 신앙적 영역에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수준과 딱딱한 음식을 먹는 수준에 관한 비유를 말할 때 담고 있는 의미는 곧 발달 단계에 관한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 발달 단계를 정확히 나눌 수 있을 지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발달 수준의 차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훈련생들의 개인적인 차이는 있다. 헌신된 사람으로서 훈련 받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기 위해 저절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초 문제도 정리하지 못하고 슬슬 눈치 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

교역자는 그 신앙 발달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훈련자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나는 유학생들의 경험을 잊을 수 없다. 지도 교수는 절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를 잘 파악하면서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추구했고 완성했을 시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은 인지적인 측면이나, 인성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발달 단계 수준보다 훨씬 높은 등급의 수준을 이루도록 요구받았을 시 자포자기하고 오히려 관계된 많은 인간의 영역들이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고 발달론자들은 이야기 한다. 그러므로 발달을 도모하는 지도자들은 훈련자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격려하며 훈련시키면서 한 단계 정도의 성숙한 방향에서 도전해가는 모습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신앙 성숙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 받지 못하고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봉사의 일을 맡긴다면 그는 곧 신앙적으로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kimany@hanmail.net

왜 내게 배우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상)

김만형 목사 (Ph.D, 기독교교육학)



잘 가르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과 동역이 우선 성경과 일반계시 속 교육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견한 좋은 교육적 접근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는 열정이다.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맡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도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 열정이 또 다른 범위로 사역의 질과 양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로서 배우는 자에 대한 사랑, 또 자신이 가르치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뜨거운 확신, 가르치고

표현하는 것과 모든 주도권을 잡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주도권을 때에 따라 훈련생들에게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도자의 열정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양하고 진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사역자는 늘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열정으로 질과 양 확대시켜야 훈련자 수준 정확히 파악, 격려 훈련하며 한단계 성숙한 방향으로 교육

일반계시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 방법과 관계된 많은 것들은 일반계시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단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교육방법론을 통해 얻는 교훈

수님의 사람을 향한 열정은 그들을 잘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서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시면서 다양하게 가르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는 열정이다.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맡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도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 열정이 또 다른 범위로 사역의 질과 양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 하나님의 열심, 또 지도자의 열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훈련자의 발달 단계에 민감하라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발달 단계 골성숙 단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초창기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비판이나 공격이 있을 때에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지도해 주셨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신년특집

들어가는 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해마다 열리는 한국선교 지도자 포럼을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설악산 컨벤션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반곡점이란 말은 수학 용어이다. 곡선이 오목에서 볼록으로 변하는 지점을 미적분학에서 반곡점이라고 한다.

30여 년 동안 계속 성장해오던 한국 선교는 성장을 멈추고 감소로 돌아섰다. 필자가 속해 있는 GMS 선교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에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GMS중남미 선교전략회의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선교사 고령화" 문제이다.

2016년부터 한국 선교의 임계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는 선교 환경에서 2018년 한국선교 전망은 밝지 않다.

외부 도전도 만만치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 하면서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시대이다.

이런 선교적 환경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필자는 몇 가지 제언하는 것으로 어려운 선교 환경을 극복하고 밝은 2018년 선교 전망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 개척(Church Planting)에서 선교 공동체 만들기(Mission Planting)

필자는 인도에서 15년 동안 현장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 건물도 지어주었다.

첫째는 현지 사역자와 성도들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선교사가 한국 교회 지원을 받아 건축을 도와주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와서 헌당식을 하고 외국인들이 왕래하면서 성도들이 현지 사역자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

두 번째는 선교사 후원으로 세워진 교회는 현지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는다. 교회 필요를 선교사가 채울 거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자치, 자립, 자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기 어렵다. 시작부터 재생산 구조가 되지 않는다.

인도 현지 지도자의 말이 생각난다. "나

던 뱅갈로르에서 톱 팔가야 현지 목사가 개척한 순복음교회는 2만명이 출석하고 있다.

선교사와 후원하는 교회는 교회 개척 촉매자(Facilitator)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현지 교단과 현지 사역자들과 세워진 교회들이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선교 훈련과 도전과 동원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물량주의 선교, 콘크리트 선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 건강한 선교 구조(Healthy Mission Structure)를 만들어라

(Decentralization) 선교 구조가 되어야 한다. 미국 남침례교단선교부(IMB)도 이미 구조 조정을 통하여 행정비를 최소화하고 각 지역선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정책과 전략을 현장에 맞도록 하고 있다.

GMS도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지역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선교사를 돕고 훈련과 행정을 맡겨 현장에 맞는 전략과 정책을 세워가도록 하고 시니어 선교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리더십이 순환하고 행정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하고 격려하고 선교에이전트는 선교자 원반비를 축소하고 선교 동원과 훈련과 행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현장에 위임하는 건강한 선교구조가 필요하다.

선교대회사 선교사 대외로 거품을 빼고 실제적인 선교 전략 모임이나, 생산적인 모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선교사역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메타(Meta)선교를 지향하라

한국선교 위기는 한국 선교사들의 역할(Role)에 대한 위기이다. 선교지 미션 단계가 미션 초기 단계(Beginning Mission Stage)가 아니다.

그동안 한국 선교사는 Missions에 바빴다. 교회개척하고 건물 짓고 선교센터 짓고 신학교 짓고 학교 짓고 구제하는 일에 피로감이 있다.

이제는 성장단계에서 제일 필요한 선교지 리더십을 개발해주고, 자발적 선교 생태계가 이루어지도록 사명감을 키우고, 현지 교회가 세계선교에 이바지 하도록 선교 동력을 불어 넣고 피선교지가 아니라 선교 실천하는 현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선교지와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메타 선교이다.

브라질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다. 선교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중국교회와 인도교회가 세계선교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한국선교가 진정으로 제 3세계 선교 지도자들과 세계선교 과업을 이루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선교 동반자(Mission Partner)로 인정하고 크리스텐덤(Christendom)식, 코리언텐덤(Koreantendom)식 선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가 한국 선교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나라 관점에서 2018년도 희망찬 한국 선교를 바라본다.

나아가는 말

선교는 하나님 선교이다. 이 시대만 선교 위기가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선교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들을 일으키어 선교 과업을 지속하게 하셨다.

2018년도 선교 전망에 대한 제언



이병구 선교사 (GMS 미주선교사훈련원장/그레이스미션대학 박사원 원장/브릿지M선교회 대표)

교회 개척하고 세우는 일은 현지 교단과 사역자에게 맡겨 선교사와 후원 교회는 교회 개척 촉매자로 역할 전환해야

무릎 가져 와서 심지 말고 씨앗을 가져다가 심어주세요. 씨앗은 인도 토양에서 잘 자라나지만 나무는 얼마 못가 죽습니다." 시시하는 바가 크다.

한국 선교 위기는 자발적 선교운동으로 시작된 한국선교가 지나치게 경직화 되어가는 "구조적 틀(Structural Frame)"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성직자 선교사 중심에서 전문인 선교사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선교지가 성직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급자 중심 아닌 복음 수용자 중심으로 현장성 선교실천 선교사는 선교의 본질인 영혼구원과 복음전파에 전력질주

를 세웠다. 그러나 인도는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선교지로 남아 있다.

들어가는 행정비가 280만불(한화30억)이다. 선교지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본국의 실무자나 파송교회는 아직도 30년전을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다. 모두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만인선교사시대로 가야 한다.

한국 교회는 선교를 교회개척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교회개척이 선교이다." 이 명제가 한국 선교를 주도하였다.

미주에 와서 보니 한인 디아스포라교회가 선교지 현지 교회보다 보수적이고, 구조적이고, 계급적인 것을 보고 놀랐다.

건강한 선교구조는 선교사 재배치가 가능하고, 다양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복음 수용자 중심으로 선교가 실천되며, 현장성을 중심으로 파송교회와 선교사와 선교 에이전트가 한 방향으로 비전을 갖고 선교적 배필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은 현지 교단이나 현지 사역자들에게 과감하게 맡겨야 한다.

과감한 선교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 "중앙집권적 선교적 구조(Centralized Missional Structure)"에서 분권화

파송교회는 선교사 관점을 이해하고 선교사는 파송교회 목사의 목회적 관점을 인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Includes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nominations like Baptist, Methodist, and Pentecostal churches across the US and Canada.

'2017년 최고의 나라는 '한국' 과 '프랑스'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국가 선정 발표

지난 2013년부터 '이코노미스트'는 "올해의 국가"를 선정해 발표했다. 단지 나라 규모나 경제력만으로 나라를 뽑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중국이나 미국이 1등을 도맡아 했을 것이다. 그 대신 이코노미스트는 나라의 크기와 관계없이 올 한해 눈에 띄게 나아졌거나 세상을 밝힌 나라를 찾아 "올해의 국가"로 선정하

고 있다.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2017년 올해의 국가로 뽑힌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다(The Economist reveals its country of the year: Is it sober Argentina, plucky South Korea or revolutionary France?).

먼저 한국의 2017년은 그야말로 특별한 해였다. 먼저 한국은 쉴 새 없이 미사일을 쏘대는 북한의 위협을 차분하고 품격 있게 견뎠다. 북한의 위협은 예전부터 늘 있던 것이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남조선에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말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 사이에 막말과 비난, 조롱이 오가며 긴장이 고조됐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미사일에 환장한 로켓맨"이라고 부르자 북한은 트럼프를 "노망난 미제 늙은이"라고 깎아내렸다.

한반도 정세도 급박했지만 한국 국내 정치 상황도 녹록치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심각한 부패와 측근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에 없던 대규모 시위로 변했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잘 처리했다(중국은 무엇보다 미국의 레이더가 북한은 물론 중국 본토를 상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문 대통령은 삼성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다. 한마디로 2017년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엄존하는 가운데서도 국내

정치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데 멈춤이 없던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즐거운 한미 FTA 재협상 요구도 정중히, 그리고 현명하게 미뤘다. 올해 한국 사법부는 한국 최고 재벌인 삼성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다. 한마디로 2017년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엄존하는 가운데서도 국내 정치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데 멈춤이 없던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 프랑스의 올 한 해도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 국가 "다 마르세이즈"의 두 번째 가사처럼 마침내 영광의 날이 밝았다고도 할 수 있다. 2017년 프랑스 유권자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정치 경력이 일천한 은행원 출신 젊은 에마누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마크롱이 대선을 앞두고 급조한 정당인 앙 마르세(La République En Marche)에는

온통 갓 정치에 입문한 새내기들만 가득했다. 하지만 대선에 이어 치러진 총선에서도 앙 마르세는 기존 정당들을 모두 완파하고 압승을 거두고 의회 다수당이 됐다. 이는 단지 정치적 이변 정도로 기록될 일이 아니다. 오래된 좌우 대립 대신 개방을 외치는 진영과 폐쇄를 부르짖는 진영의 싸움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대립 축이 형성됐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마크롱은 개방을 외치는 이들을 대표했다. 프랑스 밖에서 오는 사람, 상품, 사상과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어울릴 때 프랑스가 더욱 번성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호소했다. 집권 후 반년이 지나니 동안 마크롱 정부는 여러 의미 있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는 반부패법안과 철통같은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한 법안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



전히 끊이지 않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의 당당함을 못마땅한 허세로 여기고 현실감각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만 마크롱의 정치적 도전이 앙시앙 레짐을 타도했고, 유럽연합을 사실상 해체하려 들었을 극우 민족주의자 마린 르펜의 당선

한국-북한 핵위협 속 국내 정치 적폐 프랑스-심한 좌우대립 갈등 대신 개방 노선 선택

있다.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이 무늬만 개혁일 뿐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마크롱이 당선되기 전의 프랑스는 그야말로 개혁의 "개"자도 꺼내기 어려운 만큼 경직돼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래된 좌우 대립의 패러다임 아래서 유권자들의 선택지는 꼭 막힌 좌파 구호와 외국인 혐오로 무장한 극우밖에 없었다. 하지

막을 수 있었다. 어쩌면 현재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대립은 개방과 폐쇄를 둘러싼 사회적 가치의 대립일 것이다. 프랑스는 바깥세상과의 통로를 모조리 다 닫아버리려는 세력을 물리쳤다. 그 점을 높이 사 우리는 프랑스를 올해의 국가로 뽑았다.

비트코인 사재기 열풍, 과연 거품?

컨버세이션, 범법자들이 불법 사용...국제적 차원 대비책 마련 시급 경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 분위기는 어찌저지 조용한 느낌?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당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그럼에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자니 찝찝하다. 이미 지난 2016년, 비트코인 거래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 세계경제포럼서 세계를 바꿀 기술로 선정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범법자들

에게는 막대한 불법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천상의 화폐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컨버세이션'은 미래의 화폐로 부상되고 있는 비트코인 열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구촌 모두가 하나 되어 이를 규제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시한다(Bitcoin's surge intensifies need for global regulation of cryptocurrencies).



얼마 전 비트코인 시세가 1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는 뉴스는 지난 1년 사이 주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로 얼마나 몰려들었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그처럼 시장이 열광하는 한편에서 규제당국자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갈수록 단속의 눈길을 피해가는 범법자들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가 범법자들에게 왜 그렇게 어필할까? 암호화폐는 최근의 현상인데 신기술이 모두 그렇듯 규제 당국자들이 따라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비트코인은 2009년 초 익명으로 제정된 뒤 거래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로서 가장 먼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암호화폐는 분산돼 있다. 중앙 관리기구 없이 발행된다는 의미다. 암호화 기술 기반의 분산된 오픈소스(원천 기술 공개 방식)이며 P2P(개인간) 방식으로 기능한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암호화폐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 프로토콜이 사용자 확인과 검증 요구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블록체인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공개 원장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기반 기술)에 생성되는 과거 거래기록이 반드시 개인 ID와 어떤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암호화폐는 또한 파운드·달러·유로 같은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상

교환 가능 가상 화폐다. 그런 점에서 상거래 결제에 이용하기가 수월하다. 비트코인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피디아(여행 예약 사이트), 서브웨이 샌드위

치점 같은 유명 브랜드 상품과 서비스의 결제 형식으로 인정받는다. 그와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암호화폐가 갈수록 인기를 끄는 데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비공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규제당국과 사법당국자들은 바로 그런 특징 때문에 잠잠을 못 이루고 있다. 약명 높은 실크로드(다크웹 암시장)의 예가 단적인 증거다. 그 다크웹(일반 검색엔진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심층 웹)에서 마약밀매를 하는 데 비트코인이 사용됐다. 암호화폐 사용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추적하기 힘든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공식 금융업종은 요즘 뱅킹시스템을 통한 자금 동원과 의심스러운 움직임의 적발에 능해졌다.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테러 자금 조달에 비트코인이 동원될 수 있다. 비트코인이 파운드·달러·유로로 교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실현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교환 시점에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으로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대상의 "고객알기제도(KYC, 불법행위 차단 목적의 고객관련정보 숙지)"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세계적으로 국가적 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국제 금융규제가 강화돼 왔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만 하면 불법거래에 참여하는 개인을 추적하기가 지금은 더 쉬워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계 메커니즘의 글로벌한 숙성이 최대의 걸림돌이다. 세계 각지에서 화폐 교환소를 통한 비트코인 류의 교환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

권한을 가진 지역에서 범죄행위를 단속할 수는 있지만 범죄자들이 규제가 느슨한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쉬 따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나라마다 사이버 관련 거래 규제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국제 공조가 대단히 힘들어진다. 북한과 중국 같은 몇몇 나라에선 웹 기반 거래 규제가 국가안보 정책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모든 송신자와 수신자 세부정보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를 허용하는 법률 메커니즘이 도입됐다. 미국과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온라인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 헌법으로 보호받는 자유와 보안 우려 간에 균형점을 찾고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같은 글로벌 결계 메커니즘을 규제하는 데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각국 정부·금융규제당국·금융정보기관·사법기구가 암호화폐에 대처하는 통일된 접근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비트코인과 유사 화폐의 효과적인 규제는 불가능하다. 현재 바젤 위원회의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원칙'과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기구(IOSCO)의 증권규제원칙을 포함한 일부 국제금융표준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규제 도입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 같은 규정의 도입이 권장된다. 이는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수용한다는 신호다. 암호화폐에도 비슷한 표

파운드·달러·유로 교환 가능하기에 규제 실현 가능성 커 각국 정부·금융·사법기구가 대처하는 통일된 접근방식 도출해야

규제 시스템이 느슨하고 KYC/AML 규정이 약한 지역을 포함해 국경을 넘는 결제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규제당국이 막강한

준을 적용하는 게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선택이다. 사이버 관련 거래의 규제 방식이 나라마다 중구난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세계복음화에 함께 열심을 내야하는 이유

(3면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구약을 요약하신 내용과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주제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선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음서들이 선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이 선교의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마20:18-20, 막16:15-20, 눅24:44-49, 요20:21-23). 사도행전은 선교의 역사책입니다. 주요 인물이 선교사이고, 지명들은 선교지이며

며, 내용은 선교사의 사역 보고입니다. 서신서들은 선교사의 편지들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 교인들이나 목회자에게 써 보낸 글이 서신서입니다. 선교지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선교의 완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계5:9). 하나님은 복음전파를 위해 죽을 순교자의 수를 정해 놓으셨고, 그 수가 찰 때에 세상 끝 날이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계6:9-11). 세계 모든 족속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모

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계7:9-10). 그때 주님의 왕국의 도래하게 되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계11:15).
3. 세계선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14). 왕으로서 귀환해 오시는 재림 이전에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복음

화의 확실성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되려면 먼저 복음을 받지 못한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사탄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중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와 그의 수하의 악한 영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지 땅을 개간하라고 종들에게 명하고 여행을 떠난 주인이 오랜 여간하는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들에만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겠습니까? 사역의 열심보다 사역의 방향이 더 중요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 과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의 중심이 주님의 뜻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남은 종족들을 복음화하는 사역에 열심히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열심을 내는 해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육의 축복을 체험하는 한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션라이프 선정 “2017 한국교회 10대 뉴스”

다사다난한 2017년이였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올해 한국교회는 믿음의 본질을 고민했고, 하나 됨을 모색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동성혼, 낙태 등 거세게 밀려드는 세속 문화에 맞섰고, 정부수립 이후 처음 종교인 과세를 수용기로 했다. 흔들리는 리더십으로 주요 신학대들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대형교회의 목회 세습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고개를 떨구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재난 현장에 달려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이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이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가 선정한 '2017년 한국교회 10대 뉴스'를 모아봤다.

종교인 과세·이단 대처에 함께 고민, 지진·화재로 우는 이웃과 함께 울었다

①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교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각 분야마다 종교개혁 정신을 돌아보는 행사와 신학·학술 연구 모임 등이 줄을 이었다. 한국교회 갱신을 촉구하는 자발적인 개혁 모임도 눈길을 끌었다. 국민일보와 CBS, 주요 교단이 손잡고 연중 캠페인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캠페인은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교회 새로운 연합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② 명성교회 목회대물림

서울 명성교회는 지난달 전임 김삼환 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김 목사 청빙안은 지난 10월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동남노회의 정기노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다. 이에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목회 대물림 방지법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단 소속 목회자와 신학대 교수, 신학생 등을 중심으로 대물림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③종교인 과세, 반세기 만에 첫 시행

종교계와 정부 간 난상토론 끝에 합의된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

터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세세하게 검토하고, 과세 시행을 설득했고, 종교계는 종교자유 침해 우려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유예안을 주장했다. 정부가 종교활동비를 과세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세부조사에 앞서 자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④이단·사이비 세력 확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 주요 교단이 규정한 이단·사이비 단체들의 활동이 거센 한 해였다. 이들 단체는 주요 일간지나 방송에 광고성 기사를 내보내거나 공공장소에서 행사를 여는 등 조직적 세 과시에 나섰다. 중국 발 이단 단체인 '전능신교'도 기독교를 위협하는 단체로 떠올랐다. 동성애자들이 주축이 된 '위어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려 기독교계가 동성애·동성혼 실상을 적극 알려나간 해이기도 했다.

⑤한국교회총연합 출범과 연합기구 분열

16개월 진통 끝에 한국교회의 95% 이상이 참여하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출범했다. '장감성 순침(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이 모두 모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회연합 기구라는 지붕 아래 주요 교단들이 모인 건 처

음이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구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이은 또 하나의 교회연합 기구가 생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⑥동성애·동성혼·낙태 합법화 논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동성애·동성혼 허용을 포함하는 헌법개정 시도가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무산됐다. 개헌특위는 '양성(sex)'을 '사회적 성(gender)'으로 바꾸고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性的) 지향'을 끼워 넣어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 개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 동참자가 23만명을 넘어서면서 기독교계 등에서 '낙태죄 존치' 서명이 이어졌다.

⑦신학대 수난시대

총신대는 김영우 총장의 퇴진 요구가 고조되던 중에 총신재단이 사회가 김 총장을 재선출했다. 이에 총신운영이사회가 신임 총장을 뽑으면서 '2인 총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장로회신학대는 명성교회의 목회 대물림과 맞물려 학내 순침(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이 모두 모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회연합 기구라는 지붕 아래 주요 교단들이 모인 건 처

⑧뜨거운 신학 논쟁

지난 9월 낙마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구 나이는 6000년"이라고 답변하면서 창조과학 논란에 불을 지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오직 믿음으로'로 상징되는 칭의론과 함께 의롭다 함을 얻은 신자도 선행이 없으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유보적 칭의론'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하면서 '세대주의' 논쟁이 일기도 했다.

⑨北역류, 임현수 목사 31개월 만에 석방

2015년 1월 북한에 억류됐던 임현수(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목사가 31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는 현지 수감생활을 공개하면서 919일 동안 2757끼 '혼밥'을 하고, 주일에 홀로 예배를 드린 횟수가 130차례나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한국을 찾은 임 목사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깨달았다. 북한에 대해 원망과 상처, 불평과 불만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이라고 고백했다.

⑩지진·화재 참사와 한국교회 사랑

지난달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현지 교회 피해도 잇따랐다. 한국교회봉사단이 국민일보가 즉각 지진 피해 성금 모집에 나서는가 하면 피해를 입지 않은 교회 등에서 교회를 개방,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또 생필품 지원, 봉사자 파견 등 한국교회의 구호활동도 이어졌다. 지난 21일에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사 2명과 성도 2명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태영호 “北, 대외용 가짜 교회 세웠는데 진짜 신자 생겨나”

국민일보 초청강연서 北 종교실태 전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가짜 교회와 성당을 지어놓고 쇼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생겨났다”며 “이렇듯 종교의 위력을 깨달은 북한의 노동당이 더 이상 교회와 성당을 짓지 않고 종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국민일보 초청강연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종교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태 전 공사가 대외 강연에서 북한의 종교 현황과 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북한 사회는 수령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 놓고 국가와 당이 주민에게 필요한 물질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조건에서만 유지가 가능하다”며 “김일성 주석이 통치했던 1990년대 초까지는 복지제도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켜 그것이 가능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들어선 지금은 당과 수령이 내 생계를 해결해 주리라는 믿음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장마당 등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오면서 선택과 경쟁에 눈뜨기 시작한 북한 주민들이 '내 운명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는 마약, 술에 빠지거나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다니는 등 미신 행위가 늘었으며, 종교행위 또한 늘고 있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신격화는커녕 지도자로서의 정통성과 명분이 부족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통해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 핵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1970년대 초 김일성 주석이 ‘북한에는 더 이상 종교 문제가 없다’고 선포했지만 80년대 남한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기독교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북한의 종교정책에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고 문익환 목사, 문규현 신부 등 재야 기독교 세력과 교류하고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북한에도 종교가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불수교회의 가짜 신자들이 진짜 신앙을 갖게 된 과정, 이후 북한 당국이 다시 종교 억압 정책을 펴게 된 정황 등을 소개했다.

지난달 8월 영국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태 전 공사는 1년 정도 공개 활동하는 동안 대다수 한국인이 통일을 원치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소회도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전반적인 정서와 달리 교회만 통일을 위해 기도해도 하고 통일을 갈망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향후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거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음 통일'의 첫걸음 내딛는 놀라운 역사 애기봉에서 '남북 평화의 종 착공식·성탄축하 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우리민족교류협회는 22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전망대에서 '남북 평화의 종 착공식 및 성탄축하 예배'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휴전선 서쪽 최북단에 위치한 애기봉전망대는 1km 남짓 떨어진 북한 개성 지역까지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날 착공된 2m 높이의 '남북 평화의 종'은 2014년 철거된 애기봉 성탄트리 철골구조물과 비무장지대(DMZ) 중부전선에 설치된 철조망, 6·25전쟁 희생자 유적 발굴 현장에서 수거된 탄피 등을 녹여 제작했다.

종은 애기봉전망대 철거 후 조성되는 4만9500㎡의 평화생태공원 안에 설치되며, 유엔(UN) 영문자를 형식화한 9m 높이의 종탑에 매달 예정이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평화의 종이 힘차게 울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중단되고 남북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복음 통일의 첫걸음을 내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기대하자”고 독려했다.

서서 칼을 쳐 보습을 만들고 전쟁과 대립을 평화와 화해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각종 현안으로 신음하고 있는 교단 지도자들도 저마다 성탄메시지를 내었다.

예장 합동 총회장 정계헌 목사는 “우리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화해의 품안으로 들어가자”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량하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예수님께서 하는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가야 한다”며 “올해 성탄절은 세상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맞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성탄을 통해 사랑에서 생명으로, 진노에서 은혜로 나아가자”며 “이제 모든 미움과 다툼을 벗어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장 합신 총회장 박삼열 목사는 “성탄의 경이로움과 복락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공공장소서 이단 세력 과시 2만5000명 광화문서 집회... ‘신천지가 참 진리다’ 등 구호

한국 주요 교단이 이단 단체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광화문 일대에서 대대적인 세력 과시에 나섰다. 신천지는 최근 연이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좋은 공공장소에서 대외홍보 행사 개최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된 포교 대상인 기성교인에서 비기독교인으로 바꾼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천지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경찰 추산 신도 2만5000명이 참석한 대

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앞서 신천지는 같은 날 광화문광장을 빌려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다’라는 이름으로 신천지 홍보 행사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홍연호)의 맞불집회가 예고되면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서울시가 지난 21일 광장 이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시 규탄 집회’를 신고해 앞선 행사를 대체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과 세종로공원 근처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운 신천

지 신도들은 우의를 입은 채 겨울비를 맞으며 광화문광장 이용허가를 취소한 서울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비난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신천지 신도들은 사회자를 따라 손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광화문광장의 근거 없는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 “신천지가 참 진리다”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전피연 회원 20여명은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서쪽 현대해상분사 앞에서 신천지에 대응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신천지는 사이비종교 사기꾼집단”이라고 외치며 신천지를 비판했다.

신천지는 최근 공공장소에서 세력을 과시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교회봉사

단’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교육수료식을 치렀고, 지난 9월 18일에는 ‘너나들이’라는 단체명으로 경기도 화성 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행사를 치렀다. 24일 치러려고 했던 광화문광장 대외홍보 행사와 지난 10일 중국 장춘체육관에서 열려고 했던 교육 수료식은 전 피연과의 충돌 등 안전문제로 이용허가가 취소됐다.

경기도 구리 이단상담소장인 신현욱 목사는 “최근 신천지가 공공장소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러 세를 과시하는 건 주된 포교 대상을 기성교인에서 비기독교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신천지 포교 전략이 대폭 변하고 있는 만큼 교계 대응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교회 상대 정당한 비판 명예훼손 아니다”

법원, 명예훼손 기소된 2명 무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구 안상홍증인회)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2명은 2013년 12월 서울 관악구 하나님의교회 서울관악교회 앞길에서 호소문이 부착된 탑차를 세워놓고 피켓, 유인물 등을 통해 하나님의교회에서 나타나는 시한부종말론과 이혼 가족 신도폭행 등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규정 성격을 가지므로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면서 “특히 그 목적이 자신의 신앙리대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하나님의교회에서 나타난 시한부종말론과 신도폭행 관련 비판도 폭넓게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가 1985년 안상홍 사망 이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었고 1999년 신도들에게 Y2K나 지구멸망 예언에 관한 설문 조사를 벌였다”면서 “2012년 지구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시한부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했던 점 등을 비취볼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의교회 신도 4명은 탈퇴자 A씨가 비방을 하고 다니는 데 격분해 탈퇴자의 집에 들어가 손목과 다리 및 가슴을 묶어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면서 “탈퇴자 A씨의 아들 B군(4)의 손목을 묶고 정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폭행해 이들을 감금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님의교회 또는 장길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사주했다’는 피해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교회 관련 판결 및 방송 등을 접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허위사실이라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산 가치, 고인들의 가솔, 이혼 조장 등의 표현도 중요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 때 내려진 벌금 3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종교활동비 세무서 신고 의무화 26일 각의 통과 땀 연내 공포...교계 반발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비교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를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수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내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원안은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과세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에 앞서 자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소한의 보완’ 지시를 내린 뒤 지난 21일 기

“아기 예수가 가져온 참된 평화와 사랑, 이 땅에 퍼지길” 한국교회 성탄 메시지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각 교단들이 일제히 성탄메시지를 발표했다. 어수선한 국제 정세와 침체된 국내 상황으로 소망 없는 이 땅에 아기 예수가 가져온 참된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한국교회를 향한 세

종교활동비 세무서 신고 의무화 26일 각의 통과 땀 연내 공포...교계 반발

재부는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종교계는 강경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 총리의 편향적인 말 한 마디로 6개월간 진행된 협의 정신과 신뢰는 산산조각났다”며 “이로 인해 벌어지는 조세 저항과 최악의 사태는 현 정부가 자초한 위법과 협의 정신 파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입장문을 내고 “신뢰를 저버리고 과세 시행에 무조사에 앞서 자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소한의 보완’ 지시를 내린 뒤 지난 21일 기

상의 비난 앞에서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사랑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할 것을 격려하고 다짐했다. 한국교회총연합회(공동대표회장 정계헌 최기학 정명구 이영훈 목사)은 “한국교회는 나사렛의 첫 성탄절 때처럼 침묵하고 경청해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나부터 회개하고 부당한 탄압아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음소리를 듣자. 그리고 주님 나신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자”고 권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비움이며 희생”이라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마음 깊이 되새기며,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기를, 가지기보다는 비움기를, 섬김 받기 보다는 섬기기를 택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한반도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하고 있다”며 “주님이 이 땅에 오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1월 15일(월) 저녁 7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티켓은 일인당 50달러. 푸짐한 상품도 준비된다.

▲문의: (718)279-1414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 신년 금식 대성회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단장 강원근 목사) 2018년 신년 금식 대성회가 2018년 1월 2일(화) 오후 4시부터 3일(수) 오전 11시30분까지 뉴저지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열린다. 회비는 하루(30불), 1박2일(40불).

▲문의: kjungdrew@hotmail.com 총무 정광원 목사

제 6회 2018 교육 컨퍼런스

브레스드 컨퍼런스(Blessed Conference)가 주최하는 제 6회 2018 교육 컨퍼런스가 "Putting God First"라는 주제로 2월 10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뉴저지 초대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박형은 목사, 노승환 목사, Charlene Lee 박사 외 다수. 1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참가비는 10달러.

▲문의: (215)237-3949박찬섭 목사, (646)300-4790조희창 목사

유스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뉴욕센터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유스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NYSSMA 레벨 4이상이나 동급 실력자이며 정기 연습은 매주 주일 오전 9시15분부터 10시30분. 모집분야는 현악기(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목관악기(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및 피아노다. 단원들은 교회 특별찬양은 물론 너싱홈과 병원 등 봉사활동도 펼치게 되며 참여시간에 따라 대통령 봉사상도 받을 수 있다. 지휘자 김지영 씨는 연세대학교, 인디애나대학 석사, 예일대학 박사를 취득하고 KBS오케스트라,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 등에서 작품 위촉과 연주활동을 해왔다.

▲문의: (917)687-3320

제52차 어머니기도회 및 신년특별기도성회

미주대한민국어머니기도총연합회(회장 박에스터 목사)가 주최하는 제52차 어머니기도회 및 신년특별기도성회가 2018년 1월 4일(목) 오전 11시 뉴저지 성은장로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의철 목사(뉴저지은혜제일교회). 동 연합회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정기 기도회를 갖고 있다.

▲문의: (201)835-2427

English HMMS 리더십캠프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다음세대 회복을 위한 "English HMMS 리더십캠프"가 1월 14일(수) 오후 6시부터 15일(월) 오후 5시까지 필라델피아(52 Warden Rd, Doylstown)에서 열린다. 대상은 대학생 및 청년으로 언어별로 한국어HMMS, 영어HMMS, 중국어HMMS가 있다.

▲문의: (646)300-4790. wooltarius@gmail.com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가 주최한 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베푸는 성탄의 계절... "최선 다해 살림 잘하겠다"

제 44회기 뉴욕교협 제 1차 임신행위원회

제 44회기 뉴욕교협이 지난 22일 제 1차 임신행위원회를 열고 지난 2개월간의 업무보고와 2018년 계획 및 예산안을 발표했다.

회장 이만호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무는 이지용 목사(영접분과)의 개회기도 후 서기 김진화 목사의 회원점명, 총무 김희복 목사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44회기는 11월 3일 이취임식 후 사랑의 터기 전달과 증경회장단 초청 및 간담회를 가졌다.

2018년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 15일: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2월 5일: 신년(구정) 기도 성회, 마약퇴치 세미나 △3월 5일: 제 2차 임신행위원회, 11월 교협주간(미자립교회 후원) △4월 1일: 부활주일새벽 연합예배, 9일-13일 영



44회기 뉴욕교협 제 1차 임신행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성경 세미나 △5월 28일: 체육대회, 10일 사모위교회/세미나 △6월

4일: 이민/법률 세미나, 11월 제 3차 임신행위원회 △7월 9-11일: 할렘루야 전도대회 △8월 13일: 범종예배/내일 세미나 △9월 3일-7일: 성지/신앙여행, 17일(월) 제 4차 임신행위원회 △10월 22일 정기총회.

예산안은 399,508,000달러로 책정했다.

수입은 회비 2만 달러, 행사헌금 23만 달러, 후원금 5만1,200달러, 주소록광고 5만5천 달러 기타, 2만 2,850달러로 책정했다.

지출은 관리비 3만700달러, 인건비 4만5,400달러, 행정비 6만1천 달러, 행사비 17만3,700달러, 후원비

세미나와 어머니기도회로 한해 마무리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사역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2017년 한해를 세미나와 어머니 기도회로 마무리했다.

지난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기쁨과영광교회에서 라총재 목사(뉴욕제자들의교회)를 강사로 초청해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라 목사는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인은 새 언약을 이룬 자, 성전이 된 자이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이 인을 받게 된다. 바로 지금이 인을 받을 때이며 그것이 천국에 가는 표"라고 강조했다.

20일 오전에는 제 14회 어머니 기도회가 기쁨과영광교회에서 열려 윤세웅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윤세웅 목사는 "믿음의 어머니"(딤후1:5)라는 제목으로 설교에서 "뉴욕에서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들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어머니 이전에 먼저 올바른 구원론에 대해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구원이란 믿음의 결론인 영생 즉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

에 전도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세웅 목사는 "나는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성경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자녀들에게 구대여 세상 예화를 쓰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나는 어린 시절 기도하시는 할머니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다. 그 기도의 영향으로 5살 때 품속에서 예수님 같은 분, 손에 못자국이 있는 분, 나에게 물을 달라는 분을 만나 물을 드린 기억이 있다. 성장하면서 이 기억을 잊고 있었지만, 40년이 지나 힘들었던 시절에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으로 깨닫고 목사가 되는 계기가 됐다"며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즈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거지 없는 믿음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통해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기도회는 사회 권금주 목사(글로벌뉴욕여성목회 회장), 찬양 마요셉 전도사(퀸즈성령강림교회), 기도 조상숙 목사(글로벌케네디시티목회 회장), 설교 윤세웅 목사(KCBN 이사장, 사장), 합심기도 인도 안경순 목사(어머니합창단 단장), 헌금 특송 남상보 집사(퀸즈한인교회), 헌금기도 오명희 목사(자문위원), 광고 최근선 목사(회계), 축도 전희수 목사(글로벌연합여성목회 회장)로 진행했다.

(기사제공: 글로벌뉴욕여성목회)

법원, 필그림교회에 가압류 명령 "필그림교회는 모든 재산을 동부한미노회에 넘겨라"

소송관계에 있는 PCUSA 동부한미노회와 뉴저지 필그림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동부한미노회 측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법정은 12월 22일 양춘길 목사 등에게 '가압류 명령(Temporary Injunction)'을 내렸다. 노회에 따르면 "법원은 필그림교회의 잠핀 이사회는 동부한미노회 행정전권위원회 임을 인정하고 양춘길 목사와 장로들에게 3일 내로 모든 부동산 서류, 은행 구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넘기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필그림교회는 22일 저녁 임시당회를 열었으며, 그 결과를 23일 교인들에게 알렸다.

그 내용에 따르면 "판사의 판결로 교회 리더들에 대한 TRO(접근금지명령)가 승인돼 더 이상 담임목사와 당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교회의 건물과 모든 자산이 2017년 12월 28일부터 동부한미노회의 통제를 받게 됐다"는 것.

필그림교회는 그 대처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당회는 22일 임시당회를 통해 항소 등 더 이상 법적인 소송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목회실 당회 및 교구장회의를 통해서도 한 뜻이 재확인됐다"라며 공동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에 24일 주일 3부 예배후 공동의회를 갖는다고 공지했다.

또 당회는 12월 말부터 예배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준비된 장소는 현재 필그림교회가 있는 파라무스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Wyckoff에 있는 학교로 알려졌다.

한편 동부한미노회 측은 필그림교회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집행유예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양춘길 목사는 지난 23일 현재 집행유예명령 신청을 부인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해 온
미드웨스트대학교
www.midwest.edu

Master and Doctoral Degree Program

Brain/Gifted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 박사학위 과정
MBA - Public Policy/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학위 과정

Master of Arts Education in Brain / Gifted Education

입학자격: 유아교육, 교육전공 학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in Brain / Gifted Education Leadership

입학자격: 대학에서 유아교육, 교육 전공자, 유아교육,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MBA -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학점, 학위취득 방법 ●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 B.A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 B.S 항공학과- 조종사과정, 승무원, 운항관리사
- MA 음악, 영어교육, 상담, 교육(두뇌개발, 영재 교육)
- MBA 리더십학, 공공정책과 행정, 글로벌비즈니스, 경영학, 투자
- M.Div 신학
- D.Min 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 DM 음악 박사
- DL 리더십학 박사 -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두뇌개발/영재교육리더십

B.S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s 항공학 학사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여학생 환영

● 항공학과 특징 ●

- 1)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 2) 한국에서 조종 실기는 2-3년 소요되는데 본교에서는 학위과정 중 조종사 면장까지 취득가능.
- 3) 비행 훈련을 위한 넓은 활주로와 실기용 비행기 20 여대 준비 되어있다.

Pilot Certificate Programs (국제조종사 FAA 면장과정)

일반 대학졸업자를 위한 조종사 면장과정- 1년 과정(자가용면장, 계기비행면장, 상업용 면장)

● 본교소개 ●

본교는 1986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2 주년을 맞는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본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 여개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u.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교 (USDE) OPE ID: 035283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입학상담 및 문의처 : 636-327-4645, 070-8690-2662,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주님의 목적 위한 교협 되도록 최선” OC교협 이취임식 감사예배, 신임회장 이서 목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27대 회장 이취임식 감사예배가 지난 12월 18일 오후 5시30분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열렸다.

신임 이서 회장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교회의 위치는 아주 중요하며 교회가 서로 연합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먼저 교협이 신뢰를

얻어야 하며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님의 생명이 교협에 나타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일들이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영 부회장(큰빛교회)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이호우 직전회

장(좋은소식교회)이 이임사를 했으며 신임회장 이서목사가 취임사를 했다.

이어 교협기 이양을 했으며 이서회장이 이임회장 이호우 목사, 이임 이사장 김기동 목사(충만교회) 그리고 이임후원이사장 전준홍 장로(나침반교회)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그리고 이호우 직전회장이 신임회장 이서 목사와 신임 이사장 민승기 목사(갈보리새생명교회)에게 취임패를 증정했으며 전준홍 직전후원이사장이 신임후원이사장 김영수 장로(은혜한인교회)에게 후원

이사장 추대패를 증정하고 신임이사장과 후원이사장이 인사와 이사진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김중대 OC한인회장, 최석호 거주하원의원, 신승훈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영김 OC 4지구 수퍼바이저 후보가 축사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김항길 목사(OC원로목사회 부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취임식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본회 부회장 박재만 목사(남가주순복음교회) 사회로 시작, 남상국 목사(OC목사회장)가 기도했으며 이관우 장로(OC평신도연합회장)가 성경봉독, 문성일 목사(미주비전교회) 특송,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갑절의 영감받아 사역합니다’(왕하2:8-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금흥단체 송년의 밤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17 금흥단체연합 송년의 밤’ 남가주말선교단, 나눔선교회, 종려교회, 남가주농야교회

‘2017 금흥단체 연합 송년의 밤’이 12월 19일 오후 7시30분 또감사선교회(담임 최경옥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참가한 단체는 남가주말선교단(이종희 목사), 나눔선교회(한영호 목사), 종려교회(전성도 전도사), 남가주농야교회(강상희 목사) 등이다.

나눔선교회 찬양팀 찬양인도와 이종희 목사 사회로 시작된 송년의 밤 1부 예배는 한영호 목사 기도, 김인주 권사(말선교단) 특송, 조영건 목사가 ‘끝이 시작보다 낫고’(전7:8-10)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조영건 목사는 “성도들은 종말을 통해 오늘을 살아야 한다. 내 삶은 언젠가 끝이 온다는 심각한 앞에 오늘을 결단할 때 우리 삶은 진지할 수 있다”며 “하나님 앞에 내가 산 날을 결산할 시간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다. 한 해 동안 잘된 일 정리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 아시고 나를 불드신 것 믿음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잘못된 것 잘 정리해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일이 축복 가운데 준비돼 있을 것이다. 한해 아름답게 정리하고 믿음으로 확신 가진다면 밝아오는 새해는 우리 각 단체들이 더 발전하고 더 부흥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 말했다.

강상희 목사 축도에 이어 진행된 2부 순서는 각 단체별 영상소개, 남가주농야교회 수어찬양팀의 수어찬양, 마가렛 자매의 찬양이 있었으며 선물을 추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성도 전도사의 마무리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OC교협 이취임식에서 신임회장 이서 목사가 이임회장 이호우 목사에게 교협기를 이양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살롬장애인선교회 주최 2017년 성탄 축하예배 및 장애인 가족 장학금 수여식행사에서 장학금 수여자들과 박모세 목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성탄축하예배 및 장애인가족장학금 수여식 살롬장애인선교회, 총 21명에 1만6천3백 달러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는 2017년 성탄 축하예배 및 제 18회 장애인 가족 장학금 수여식을 12월 21일 오후 6시 아라마일 셔센터 5층 ‘The One Banquet’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모세 목사 인도로 시작된 1부 성탄축하예배는 GGM 찬양팀이 찬양과 경배를 인도했으며 김명숙 전도사가 기도를 배우는 자매가 특송을 불렀다.

이어 한천영 목사(갈릴리선교회)가 ‘임마누엘의 축복’(사7:14, 마1:18-2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2부 장학금 수여식은 장애인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격려가 필요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교 재학생, 총 21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16,300달러)을 전달했다.

3부 만찬과 나눔의 시간을 가진 후에 열린 4부 순서는 이창록 집사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99년 6월 LA 코리아타운에 설립돼 지난 18년 동안 남가주는 물론 지구촌 장애인선교를 위해 헌신해왔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west

선한목자교회 2018년 신년 특별 저녁집회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2018년 신년 특별 저녁집회를 1월 4일(목)부터 6일(토)까지 개최한다. 일정과 강사는 4일(목) 저녁 8시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5일(금) 저녁 8시 여승훈 목사(베이크스필드 아름다운교회), 6일(토) 저녁 7시30분 문영명 교회(컴패션 미주한인사역 대표).

▲문의: (909)591-6500

인랜드교회 선교 컨퍼런스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는 선교 컨퍼런스를 1월 12일(금)부터 14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손창남 선교사(전 OMF대표)이며 일정은 12일(금) 오전 5시30분, 13일(토) 오전 6시, 14일(주) 1-3부 예배

▲문의: (909)717-0909, (714)705-9123

충현선교교회 말씀세미나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는 사도행전 말씀세미나를 1월 3일(수)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강사는 신용길 목사.

▲문의: (818)549-9191

이슬람 선교 세미나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는 이슬람선교 세미나를 1월 6일(토) 오전 7시 본 교회 새가족실에서 갖는다. 세미나 내용은 이슬람 선교전략 및 현황이다.

▲문의: (408)263-5100



2017 아주사송년의밤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성실한 말씀의 통역사가 되라” 2017 아주사 송년의 밤, 설교 최경환 목사

아주사피서피대학교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 2017 아주사 송년의 밤 행사가 18일 오후 6시30분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저녁 만찬시간에 이어 최장식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오위영 목사가 특송을 불렀으며 이요한 목사가 찬양인도 했다. 이어 승광철 목사(새생명교회 담임)가 기도, 안효민 목사 성경봉독 했다.

이날 말씀은 최경환 목사(시온성결교회)가 ‘성실한 통역사’(느8:7-8)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최 목사는 “영적부흥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말씀이 필요하다. 지금시대는 모든 것이 어렵다. 그러나 이때가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영적싸움의 시대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잘 풀어서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통역사 돼야 한다”며 “에스와 함께했던 13명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길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설교가 마친 후 이날 모인 동문들과 졸업생 앞둔 재학생들이 자기 소개를 하며 친교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날 동문들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최경환 목사, 이희문 목사, 승광철 목사에게 공로패를, 김사라 전도사 박준호 기자, 임영미 전도사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다니엘 뉴먼 박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여성선교합창단 제 16회 송년모임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단원들

LA여성선교합창단, 본지에 선교비 후원 송년모임 갖고 감사예배...12명에 개근상

LA여성선교합창단(단장 최정직, 지휘 최왕성) 제 16회 송년모임이 12월 20일 오전 11시 제일침례교회(담임 Norman Bultock)에서 은혜가운데 열렸다.

송년모임에 앞서 최정직 단장의 사회로 드려진 감사예배는 김민석 장로(이사장) 기도, 김상희 권사(부회장) 성경봉독과 Norman Bultock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놀만 목사는 ‘크리스마스의 기쁨’(눅2:8-14)이라는 제목으로 “크리스마스는 기쁨을 나누는 절기이다. 선물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라는 성탄절이지만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 올해에도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준 목사)에 선교비 500달러를 전달하며 문서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미주크리스천신문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임에 참석한 표준조 권사를 비롯한 12명에게 개근상을 전달한 후 만찬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본 합창단은 2018년 1월 10일 첫 모임을 제일침례교회(760 S. Westmoreland LA)에서 갖는다. 자세한 것은 (213)448-6201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코이노니아선교회 산하 ‘Wings of Joy’ 자선공연단 대통령봉사상 수상했다

‘Wings of Joy’ 자선공연단 대통령 봉사상 수상 코이노니아선교회 산하, 2009년 이후 100회 공연

코이노니아선교회 산하 “Wings of Joy” 자선공연단의 100회 공연 및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18일 오전 10시 토렌스케어 센터웨스트에서 있었다.

“Wings of Joy” 자선공연단은 2009년 11월 첫 공연을 시작한 이래 매달 1회 자선공연을 가진 것이 이날 100회 공연을 맞게 된 것이다. 이날 공연은 피아노 트리오, 바이올린, 첼로, 색소폰 등 악기연주와 찬양무용, 성악, 하프 연주(특별순서)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코이노니아선교회 대표 박종희 목사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4:7)라는 말씀처럼 결순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담대히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두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한 수상자는 총 11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은숙, 최순식, 윤은주, 남자녀, 박세미나, 박타미나(금상), 신은희, 김병숙, 김홍섭, 한원정, 한현정(동상). 이들은 자선공연단의 단원으로, 양로병원 심방자로, 독거노인을 위한 문화교실 봉사자들로 많게는 8년, 적게는 1년 이상 봉사한 자들이다.

코이노니아선교회는 우리 주변의 노인과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선교단체이며 지난 2009년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박종희 목사가 다운타운에 소재한 한 곳의 양로병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됐다.

2017년에 이르러서는 연중 20곳이 넘는 양로원, 양로병원, 그리고 노인아파트의 연인원 8,000여 명의 환자와 독거노인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문의: 박종희 목사(310-508-2733)

(기사제공: 코이노니아선교회)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 수상 2018 Impact-Makers to Watch상... 한인 유일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이 City Impact Lab에서 매해 시상하는 Impact-Makers to Watch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 사무국장은 “제가 받기엔 너무 과분한 상”이라며 “2017년 한해를 돌아보면 한미연합회에 귀한 봉사자 분들과 스텝, 그리고 이사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작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Impact-Makers to Watch 상은 한 해 동안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사회 발전에 공헌할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수상자는 LA 시의원 및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같은 LA 리더들의 추천으로 선정되며 수상자는 City Impact Lab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2018년 수상자로 16명이 선정됐으며 그 중 방준영 사무국장이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오는 2018년 1월 16일(화) 오후 5시 반 LA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식 및 리셉션에 참



2018 Impact-Makers to Watch 상 수상한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

석하시기 원하는 분들은 1월 7일(일)까지 City Impact Lab 웹사이트나 https://www.eventbrite.com/e/impact-makers-to-watch-2018-tickets-40856094679?aff=eac2에 접속해서 등록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신년축하광고

Happy New Yea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1)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홍석목사 244-97 St, 61Ave, Little Neck, NY 11362 Tel. (718)279-1414 nyckcg.org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2017년 4월 16일(주) 5시 45분 - 7시 10분 Teaneck Armory, NJ (1799 Teaneck Rd, Teaneck, NJ 07666) Tel. (551)257-5001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종국목사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필라델피아교회협의회 회장: 김영천목사 4 Elm Dr, Lansdale, PA 19446 Tel.(215)917-3315 www.ckcgp.org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임지석 300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20 Tel. (213)219-9229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12-25 Clintonville St, Whittho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0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벽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장요섭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르크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215)927-0643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2. 사모에게 필요한 신학공부

‘목회자 사모가 신학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자매와 결혼하기를 꺼려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모가 잘난 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학공부는 목사가 했으면 됐지 굳이 사모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가능하면 사모도 신학공부를 해두라고 권면하고 싶다. 필자는 사모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사모들의 갈등 중 하나가 남편 목사한테 무시를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모가 남편 목사에게 무슨 조언을 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잖아!” 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 받는 그 상처는 너무나 크고 오래 간다고 한다. “그래, 너 혼자 잘해봐라!” 하면서 반감과 미움이 생겨 도와줄 마음이 사라지고 남편 목사를 위해 중보기도도 하기 싫어진다고 호소하는 것을 들었다.

필자는 사모학 세미나에 가서 사모들에게 가능하면 신학공부를 하라고 권한다. 그러면 어떤 사모는 자기는 하고 싶는데

휴스턴신학교와 풀러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남편 목사의 적극적인 격려와 도움으로 두 신학교를 졸업했다.

물론 남편 목사의 목회를 도우면서 신학공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남편 목사의 목회를 내조하고 성도를 섬기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특히 은퇴 후에 남편 목사와 함께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 수련회나 현지인을 위한 강의를 할 때 남편 목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보람된 일인지 모른다.

텔러스 신학교 교수이며 목사의 아내로서 25년간 가장 성공적으로 사모의 길을 걸은 도로시 펜트코스트는 “The Pastor’s Wife and the Church”라는 책에서 목회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3가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의 아내에 관한 준비는 결혼 전에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남편이 다니는 신학교를 통하여

특히 도로시 펜트코스트 사모는 사모들이나 사모 후보생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 특별히 사모학에 관한 책들을 통하여 사모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가 당면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리폼드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는 3년 과정의 사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 과정은 ‘Mrs. in Ministry’라고 불리고 있다. 이 과정은 사모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 영역을 배우고 실질적인 준비 과정으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 사모들은 남편과 사역하는 동안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되며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 대화 속에서 당연히 신앙적인 문제가 나올 뿐 아니라 때로는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해올 때가 있다. 그때 사모는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모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5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메리루 휘틀락 사모는 아무리 신학교 수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음행의 유혹을 이기려면...(고전5:1-5)찬197장****
음행의 죄는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이기니까?(1) 첫째, 하나님에 대한 불신실에서 시작됩니다. 그 음행은 사람에게 대한 불신실 공, 생활의 음행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음행을 불러옵니다. 교회에 이런 죄가 생긴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 불신실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 때문에 이 죄를 치료될 수 없었습니다. 주신 은사를 잘못 관리해 교만에 빠진 그 교회는 아파하거나 회개할 줄 몰랐습니까?(2) 첫째, 하나님에 대한 불신실 공,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권징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2). 음행의 죄를 책망하고 권징 할 수 없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음행의 유혹에 노출된 우리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합니다.

화 사도의 권징(고전5:3-5)찬206장****
사도는 죄로 더럽혀진 교회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첫째, 그는 영안으로 교회를 살렸습니다(3).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성령으로 사도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죄악의 상황을 염려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목회적 보살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둘째, 그는 긴급 조치로서 그 죄인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4-5).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장본

인의 구원까지도 생각해 도려내는 아픔을 갖게 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개인이 살기 때문에 사도는 영적 권위로 그 흐름을 중단시켰습니다. 셋째, 마지막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5). 권징은 아프지만 그것을 잘 받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책망을 잘 받으시라.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33)



이희숙 사모

자신의 남편 목사가 매사에 사모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못한다고 한다. 목사님 자신이 열등의식을 갖게 되어 싫다고 반대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사모가 신학공부를 해서 교인을 끌고 나가서 개척교회를 세우겠는가? 혹은 주일 날 대신 설교를 하겠는가? 필자는 훗날 가능하다면 사모학교를 세워 목사님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사모에 대한 이해의 장을 넓혀가고 싶다.

필자는 한국에서 약학 공부를 했고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고 교회 봉사를 하다가 미국에 와서도 대학원에서 약학을 공부하여 약사로 일하다가 목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물론 남편이 미국인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을 때는 사모로서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아내로서의 할 일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부터 많은 성도들이 사모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고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필자는 “목사님께 여쭙어 보세요.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모릅니다. 저는 약학을 전공했습니다” 하며 오히려 당당했다. 영적인 것에 대해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남편 목사는 목회에 바쁘게 뛰는데 사모가 되어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하나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사모가 된 것 같아 스스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좋은 하나님께서 필자를 불쌍히 보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다. 마음의 소원과 도전을 주셔서 늦게나마 정식으로

물론 남편 목사의 목회를 도우면서 신학공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남편 목사의 목회를 내조하고 성도를 섬기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특히 은퇴 후에...남편 목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보람된 일인지 모른다.

도움을 얻는다.

셋째, 이미 목사의 아내가 된 사람들이 받는 끊임없는 ‘자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녀의 책을 보면 결혼 전부터 영어 과목이나 대화하는 기술, 심리학, 상담학 등 목회에 관한 전반적인 독서를 해놓아야 한다고 기록되고 있다.

또한 심리검사(Psychological Testing)를 받으면 3가지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한다.

첫째, 심리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알 수 있고 그 약점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결혼 전에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약점을 치료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치료를 통해 많은 사모들이 정서적인 병과 변민, 온전하지 못한 성격에서 구제 받을 수 있다고 권면한다.

셋째, 이 검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나는 신학생들의 아내들에게 인생을 건 목회의 길에서 필요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밀어붙이기를 권면하고 싶다. 우리는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신학 수업이 실제 목회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만약 사모가 폭넓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 진가는 교회에서 여러 방식을 통하여 발휘될 수 있다. 사실 미국 내 유명한 목사 사모들은 거의 신학교 출신이다. 만일 사모들이 신학공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종 세미나 방송 통신 등의 방식으로 신학 입문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성경학교나 상담 학교에 입학하여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배움은 앞으로 교회 사역에서 남편 목사의 훌륭한 ‘에제르’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의 비전과 자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hslee39@sbcglobal.net

수 누룩 같은 죄(고전5:6-8)찬337장****
이런 일을 통해 사도는 죄의 영향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작은 누룩의 영향을 조심시켰습니다(6). 여기 누룩은 죄입니다. 작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둘째, 새 덩이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권했습니다(7).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한 교회는 새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분이요 나타내야합니다. 그러기위해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든 방면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일은 결코 새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순전과 진실함의 떡을 먹게 했습니다(8). 유월절은 한 날로 마치고 그 효능을 누리기 위해 무교절을 지키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한 진실한 삶을 즐겨워하는 것이 죄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즐기며 살아갑시다.

목 음란한 시대를 이기는 방법(고전5:9-13)찬194장****
사도는 죄의 뿌리인 불신실이 빚어내는 음행의 죄를 이기는 적극적인 길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이 머물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합니다(9-10). 룯은 소돔 고모라의 음행의 분위기 속에 머물러 실패한 분이었으나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한 삶을 살므로 음란한 그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본입니다. 죄악의 문화 속에서 타협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힘써야

한다. 둘째, 음행자와는 작은 일부터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11). 세속을 떠나지 않아도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그 자극적인 죄를 철저히 경계해야합니다. 그러자면 개인적인 교제를 단절하고 삶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합니다(12-13).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럽히는 이단 교훈이나 거짓된 교훈은 반드시 정리되어야합니다.

금 교회의 분별력(고전6:1-7)찬193장****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경을 생명처럼 여겨야합니다. 온갖 상황에서 어떻게 분별력을 가집니까?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어야합니다(2-3).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받은 교회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합니다. 이것은 설교의 권위가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형제를 바로 인도하는 지혜를 가져야합니다(5). 그러자면 교회는 진리의 말

뿐 아니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 죄인이 부끄러워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해야 합니다. 햇빛 아래 촛불이 무색하듯이 자신이 먼저 빛이 될 때 어두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죄를 경계하나 연약한 자의 불행에 걸려들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6-7). 차라리 죄인 취급을 당하는 수고로 약한 자는 강해지고 교회는 더욱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전6:8-11)찬492장****
사도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중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구원은 언제나 종말론적 완성된 구원, 하나님나라의 참여함에 두었습니다.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째, 불의한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9-10). 사도가 말한 10가지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욕,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함, 속여 빼앗는 자들은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

상을 갖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로 속죄 받은 자만 들어갑니다(11). 이미 예수 믿은 교회는 그 유업을 모두 받은 자이나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합니다. 이미 받았으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들어가기 전 그 은혜를 누립시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장 결의서 수상 이기철 LA총영사 재임기간 업적 기려

이임을 앞둔 이기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2월 21일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장으로부터 재임기간동안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서를 수상했다.

동 결의서는 직업 외교관으로서 30여년 공직에 몸담았던 이 총영사의 주요 경력과 함께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로서 재임기간 중에 한-캘리포니아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장려하는 한편, 당시 재외국민의 안전과 번영, 소통, 그리고 역량 강화를 지원했고, 한미간의 문화 사회 교역 관계증진을 위해서 노력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동 결의서는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 Anthony Rendon 하원의장, Rob Bonta 아시아태평양 코커스 회장, 최석호 의원, Sharon Quirk-Silva 의원 등이 발의했다.

한편 LA시도 데이비드류 의원



이기철 LA총영사 총영사 업적 기리는 결의서

발의로 이기철 총영사의 동포사회에 대한 헌신과 열정, 지역 구성원에 대한 봉사활동을 기리는 감사장을 전달한 바 있다.

(기사제공: LA총영사관)



경동나비엔 미주법인이 LA한인타운에 있는 시니어 센터에서 한인 커뮤니티 봉사에 앞장선 분들께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 증정식을 기렸다.

경동나비엔 시니어센터에 온수매트 증정

경동나비엔 미주법인(법인장 이상규)이 12월 18일 오후 1시 LA 한인 타운에 있는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한인 커뮤니티 봉사에 앞장선 이들에게 경동나비엔 프리미엄 온수매트인 ‘컴포트 매트’를 선물하는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온수매트 증정행사는 시니어센터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에 최소 3년 이상 앞장선 전 남가주 미술가 협회장 박영국 교수와 엘리트사진작가협회장 최춘식 교수, 컨트리댄스 김동실 교수가 선정됐다.

이영송 시니어센터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는 경동나비엔 이상규 미주법인장의 축사 후 온수매트 전달식이 이어졌다.

이상규 미주법인장은 “경동나비엔이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

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커뮤니티를 위해 온수매트 증정 행사를 늘려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동나비엔은 온수매트 전달식과 함께 시니어센터에서 강의 듣는 시니어 120여 명을 초청해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를 맞아 점심 도시락과 함께 팔죽을 대접했으며 이 자리에는 데이빗 류 LA시의원이 참여해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팔죽을 손수 대접하기도 했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LA한인가정상담소와 뉴욕가정상담소 등을 통해 위탁가정이나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온수매트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열린 세계 vs. 닫힌 세계...갈림길에 선 지구촌



(2면에서 계속)

북미자유무역조약(NAFTA) 강행을 목표로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에 따른 관세 논란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인 북한의 핵위협 도발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책 아니면 유화책으로 나갈지, 결정해야하는 시점이다.

7. 첨단 기술과의 충돌(“techlash”)

지구촌 정치는 이제 SNS로 대변되는 첨단 장치들인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거인들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된다. 이미 애플이 수사를 목적으로 계정 보안을 해지할 것을 거부한 것처럼, 콘텐츠의 내용과 개별 유저들의 보안에 대한 규정들과 해석으로 법리적 싸움을 벌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짜 뉴스(Fake News)”의 침공으로 인한 진실 규명과 확대에도, 첨단 SNS 선도 기업들은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영역을 구축하게 된다.

8. 아시아 국가들의 부상

서방 열강들에게 주어졌던 부상들을 이제는 아시안 국가들이 차지하게 된다. 먼저 부탄은 경제 성장에서 부동의 1등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이탈리아를 제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각상, 근대 인도의 아버지 파테이 상을 준공하게 된다.

9. 의학 기술의 새로운 전기 마련

많은 의료계 전문가들은 2018년 이 드디어 꿈에 그렸던 DNA 조작을 통한 필요가 현실로 다가오는 첫 해가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소아마비가 사라진 세상에 인류는 살게 된다.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기관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 기독의료상조회 —

www.cmmlogos.org

기독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c)(3)로 승인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산하에서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가 되는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4만여 회원들이 함께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65세 이상 Medicare A & B 소지자를 위한 Gold Medi-I, 65세 이상 기존 회원을 위한 Gold Medi-II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 음주, 흡연, 마약, 비정상 성생활 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기존회원이라도 상기조건외의 실격시에는 의료비 지원이 안되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 의사나 병원을 지정, 제한하지 않습니다.
-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및 선교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연중 수시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한국어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 2002년 이래 회비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 가입 이전부터 있는 증상이나 치료중에 있는 질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가입 후 90일 이후 발생된 질병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가입 후 300일 이후의 출산비가 지원됩니다.

Established 1996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대표전화 **(773) 777-8889**

